

# 國際交流教育의 현황과 개선방향

李 學 鍾

(延世大 國際學大學院長)

## 1. 머리말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동안의 고도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사회문화 발전을 바탕으로 大學의 國際交流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근래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추세는 대학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한층 더 증진시켜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문화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국제교류도 계속 증진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교류 현황을 정리하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 韓國大學의 國際交流 現況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 대학과의 국제교류는 1960년대 초에 경희대와 미국의 마이애미대학, 서강대와 미국의 마르케트대학, 그리고 연세대와 일본의 국제기독교대학이 각각 학생 및 교수교환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말까지 82개 대학이 48개국의

대학과 총 693건의 자매결연 협정을 맺어 왔다.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협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교류 주요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姊妹結緣 체결 現況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15개 대학 중 70% 이상이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24개의 국·공립대학 중 단지 2개 대학만이 그리고 91개의 사립대학 중 31개 대학이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있다. 국·공

〈표 1〉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현황

구 분	대 학 수	자매결연 체결수	
		한국대학수	자매결연 수
국·공립	24	22	101
사 립	91	60	592
계	115	82	693

\* 자료 : 교육부(1991.1.1 현재)

립대학 중에서는 부산대가 5개국의 대학과 16건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가장 많고, 사립대학 중에서는 연세대가 10개국의 대학과 139건(1990년초 현재)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연세대 단독으로만도 우리나라 대학 총 자매결연 건수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할 때, 60 개의 사립대학이 모두 592 건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총 체결 건수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73 개 대학이 미국의 대학과 343 건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39 개 대학이 일본의 대학과 75 건, 그리고 44 개 대학이 대만의 대학과 70 건을 체결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자매결연 현황은 70% 이상이 미국, 일본, 대만 등 세 나라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交流相對國의 多邊化

자매결연의 미국 대학 집중 현상은 특히 1980 년대에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 년대 하반기부터 미국 대학으로의 집중 현상은 다소 둔화되는 한편, 유럽과 공산국과의 자매결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제교류 상대국이 점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소련, 중국,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몽골, 베트남,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제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1988 년 9 월부터 1990 년 말까

〈표 2〉 지역·국가별 자매결연 체결현황

국가·지역	시기	1970년 이전	1971~ '80	1981~ '85	1986~ '90	계
미 국		7	32	182	122	343
아시아 (일본· 공산국 제외)		6	29	31	29	95
유럽 (공산국 제외)		1	9	19	55	84
일 본		2	13	17	43	75
공 산 국*		0	0	0	34	34
캐 나 다		0	2	6	13	21
남 미		4	0	6	10	20
호 주		0	0	2	8	10
중 동		1	3	1	4	9
아 프 리 카		0	1	1	0	2
계		21	89	265	318	693

\*소련, 중국, 동구, 몽골, 베트남 등

지 27 개 대학이 이들 나라의 대학과 34 건의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1991 년에도 특히 소련 대학과의 체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도 수교국이 될 것이므로 이들 나라 대학과의 교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의 경우 1988 년 정규 학기 동안 4 개국 29 개 대학에서 82 명의 교환학생이 들어오고, 54 명의 연세대 학생이 5 개국 20 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1991 년에는 9 개국 46 개 대학에서 112 명의 교환학생이 왔고, 133 명의 연세대 학생이 6 개국 32 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불과 3 년 동안에 교환학생으로 연세대에서 수학하는 외국 학생과 외국 대학에 파견된 연세대 학생 수가 80% 나 증가했고, 교류 상대국과 교류 상대 대학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 3) 交流相對大學의 高級化

교류 상대국의 확대와 더불어 교류 상대 대학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시작된 1960 년대에는 교류 상대 대학으로 소위 일류대학이 극히 드물었지만, 1970 년대부터 우수한 대학들이 자매결연 상대 대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 년대에는 세계 각국의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교류 상대가 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브라운대학(1985), U.C. 버클리대학(1986), 시카고대학(1987) 등 미국의 유명대학과 결연을 맺었고, 그 이외에도 일본의 게이오대학(1973), 영국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1990), 핀랜드의 Helsinki School of Business(1988), 소련의 모스크바대학(1990)과 레닌그라드대학(1990) 등 세계 각국의 유명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1991 년 연세대 국제교육부의 학생교환 상황을 볼 때, 학생교환의 80%가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공립 또는 사립 종합대학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학생교환도 소규모 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s)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교환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학생교환뿐만 아니라 교수교환과 교수들 간의 공동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연세대의 경

우, 미국 브라운대학과의 교환협정에 따라 연세대 교수가 매년 브라운대학에서 한국학 과목을 가르쳐 왔고, 최근에는 모스크바국립대학과도 한국어, 노어, 노문학, 음악, 과학 등의 분야에서 교수교환 및 교수들 간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류 상대국이 확대되고 교류 상대 대학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류의 범위도 학생 교환은 물론 교수교환과 공동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개방 및 국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 3. 國際交流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국제교류는 대학교육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大學教育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대학의 국제교류를 계속 확대시키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주요 문제들과 개선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國際交流의 偏重性

우선 교류 상대국과 교류 상대 대학의 地域的 偏重 경향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자매결연은 약 50%가 미국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국제교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많은 대학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을지라도 연세대와 같이 국제교류를 이미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가능한 한 지역적 편중경향을 탈피하고 地域的 多邊化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호주 등의 나라에는 학문적 수준도 높고 교육조건도 매우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 지역에서

의 좋은 교육기회가 등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교류의 지역적 다변화는 국제교류의 상대국 및 상대 대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은 아프리카 국가와 남미 국가들과의 교류가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면 무엇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교류 활동도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학문 분야에 있어서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교환에서는 대체로 대학원보다도 학부에 크게 편중되어 있고, 학문분야별로는 이공분야보다는 인문분야에 크게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대학은 특히 이공분야에서 우리보다 교육설비가 월등하고 대학원교육도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서 월등하게 우수한 점을 감안할 때, 학부에서의 이공분야와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생교환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 발전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대학원 교과과정에서는 종합시험이 있는 최종 학기에는 석사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졸업예정 기간 내에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렵다. 또한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문적 전문성 때문에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대학원생들의 교환교류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 2) 姉妹結緣協定の 內實化

현재 많은 대학들이 외국의 많은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이중의 상당 수가 문서상으로만 협정이 체결되었을 뿐 실제 교류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호 유익한 교류관계(reciprocity)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자매결연 자체가 대학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정책결정자나 특정 교수의 개인적 연고로 중심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대학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교류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류 실적이 없는 자매결연은 과감히 정리하고, 일방적인 교류는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조정·강화·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는 데에는 교류국 간의 共通言語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연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國際交流教育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국제학부와 국제학대학원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학기당 60~70개의 과목을 영어로 강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교류 교육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외국어(특히 영어)로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 이외에 역사와 문학,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등 주로 우리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國學과 東亞細亞學 과목들을 영어로 개설함으로써 학생교환을 통한 국제교류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에 우리 대학생들은 외국 대학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과목 이외에 선진국 대학의 경우에는 각종 교양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많은 대학들이 특정 학문분야에서 독특한 特徵과 優秀性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중심으로 交換協定을 체결하고 실제 교환프로그램에서 이를 강조함으로써 교류대학 상호 간에 보다 유익한 교환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 3) 學科教授의 參與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데에는 국제교육부와 같은 專擔機構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교류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준으로 그리고 교수교환과 교류대학과의 공동연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교류에 대한 관심이 學科 수준에서 높아져

야 하고, 학과 교수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학부수준에서의 학생교환은 대체로 국제교육부가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석·박사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學問의 專門性을 고려하여 교환 상대 대학의 선정과 과목 선정 그리고 나아가 강의 또는 연구 담당교수의 선정까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므로 대학원생교환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과 교수들의 지도와 직접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교류 교육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學生交換의 質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류대학과의 교수교환과 교수들 간의 共同研究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학생교환에서 교수교환 및 교류대학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중요과제이다. 교류 상대 대학과의 교수교환과 공동연구 역시 학과 교수들의 직접적인 참여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국제교류 교육은 전담부서인 국제교육부뿐만 아니라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학과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4) 教育環境의 改善

국제교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류대학의 교수와 학생이고 교류여건은 교육시설과 교육 분위기인 만큼, 국제교류의 장기적인 발전은 교류대학 간의 학문적 수준과 교육환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이 학문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류를 전개하기 위하여는 보다 우수한 대학들을 교류대상으로 유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수와 학생의 학문적 수준 이외에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 등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시설도 성공적인 국제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의 이러한 교육 및 생활시설은 학문적 수준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의 도서자원과 기숙사 설비가 국제수준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것은 국제교류의 질적 향상에 커다란 장애요소이므로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국제교류 교육은 단지 교류 상대 대학에서의 학문적 추구에서만 아니라 대학 교내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의실과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숙사와 과외 활동에서 현지 학생과 외국 학생들 간의 共同生活은 성공적인 국제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외국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교과상의 학칙, 교수와 학생 간의 상단 및 지도, 교수평가, 도서관 사용 규칙, 기숙사 규율, 학생 서클활동 등 여러 가지 대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이것이 그들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 학생들은 우리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한편, 우리 대학도 외국 학생들의 기대와 욕구를 이해하고 가능한 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開放的 雰圍氣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학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외국 학생의 이색적인 행동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학생의 행동경향은 국제교류의 큰 장애 요인인 것은 물론이다.

#### 5) 産學協同과 支援

국제교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명문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그것은 특히 미국의 경우 명문대학일수록 수업료 등 교육비가 비쌀 뿐 아니라, 학생교환 및 한국학 등 해당 학문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교수진 내지는 연구자원의 확보까지 연관시켜 상호교류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과의 국제교류는 많은 敎育資源의 투입을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 대학은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이러한 막대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일반적으로 財界 등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연세대가 미국의 브라운대학, 시카고대학 그리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학생 및 교수교환을 할 수 있는 것도

財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産學協同 차원에서 체계적 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이 국제교류 교육의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 4. 結 論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교류 교육은 과거 30년 동안 사회 문화 발전과 더불어 계속 증대되어 왔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현재 우리 대학의 72%가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교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국제교류 교육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공산국과 유럽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大學敎育의 國際化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국제교류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국제교류 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제교류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은 학생교환이고, 외국 대학의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 이외에 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들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는 것이 학생교환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교류는 주로 학부의 인문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선 선진국 대학의 이공분야와 대학원 교육의 우월성을 고려하여 학부의 이공분야와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생교환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생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과 교수들의 지도와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敎授交換과 共同研究는 국제교류 교육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교수교환과 공동연구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이를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대학이 당면한 중요과제이다. 학생교환과 교수교환 그리고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

려면 우리 대학의 敎育與件과 敎育環境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하므로 이것 역시 많은 대학이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국제교류 교육에 적절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갖추려면 많은 資源投入이 요구되므로, 특히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동을 통한 財界의 재정

적 지원이 성공적인 국제교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가속화될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國際交流敎育은 대학교육 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제교류 교육을 확대시키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